

# 국제경쟁력 갖춘 첨단 하이테크 기업으로 도약

나리지\*온(대표 조장연)은 지난 1988년 대일 종속 관계였던 국내 화합물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 및 대외 경쟁력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두려움 없는 도전을 감행한 젊은 벤처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국내 최초의 화합물 반도체 기업이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고속, 저전력, 저잡음, 내열성 등, 우수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통신용 반도체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갈륨비소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나리지\*온의 탁월한 기술력과 마케팅력은 모토로라, 에질런트(옛 휴렛패커드), 오프론, 에버라이트, 라이트온, 고덴시 등, 세계 유수의 다국적 IT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전체 매출 중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을 만큼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갈륨비소 적외선 소자는 세계 시장 점유율 30%로 업계 1위, 갈륨비소 파워 렉티파이어는 미국 루슨트 테크놀러지를 통해 사실상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인 '백색 LED' 개발의 주사업자로 선정됨으로

써 2010년 11조원 규모의 거대한 조명용 백색 LED 세계 시장 선점을 준비하고 있다.

## 수익성 극대화 위해 파운드리 사업 진출

2001년부터는 사업의 고도화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파운드리 서비스 사업에 본격 진출, 증축중인 제 2공장에 월간 6인치 갈륨비소 웨이퍼 3,000매를 가공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오픈 파운드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갈륨비소 반도체 종합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이 회사는 2000년 상호변경과 함께 제 2의 도약의 해로 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및 개발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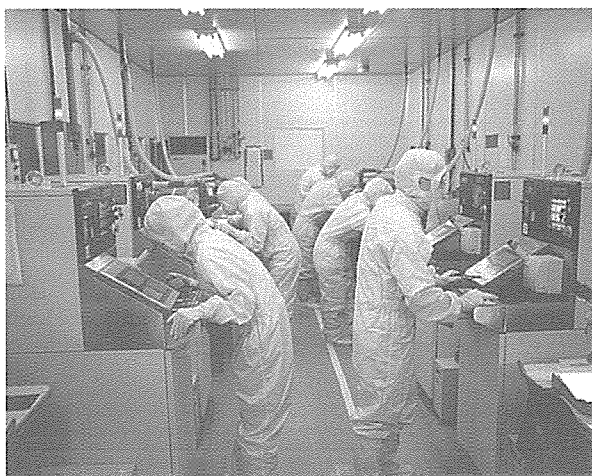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적외선 소자의 경우 자체 에피(Epi)기술을 확보해 기존 오픈마켓 외 패시브마켓을 적극 공략해 향후 50%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워 디바이스인 갈륨비소 파워 렉티파이어의 경우 실리콘 렉티파이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자체 기술 장벽 구축과 새로운 용도개발 및 거래선 다양화를 통해 현재의 독점 공급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정단계별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성공했으며 향후 수직계열화된 벤처 네트워크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나리지\*온의 지난해 매출은 기존 제품들의 지속적인 매출 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45% 성장한 3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 증가, 생산성 향상, 금융비용 감소로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41%와 37% 증가한 60억원과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파워디바이스, 광소자, 디지털 LED 양산성공

그 동안 일본 기업의 특허 장벽으로 인해 사업 진출이 어려웠던 청색 LED 제조 기술에 대해 독자적인 특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VCSEL(표면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 디지털 LED와 같은 첨단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시양산 하는데도 성공했다.

아울러 그동안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MMIC(초고주파 집적회로)를 자회사인 엠비션을 통해 국내 최초로 양산 채용에 성공함으로써 이동통신용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리지\*온의 주요 생산 제품은 크게 파워 디바이스와 광소자로 분류할 수 있다. 파워 디바이스에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원공급장치로 사용되는 갈륨비소 파워 렉티파이어(Power Rectifier)가 있으며, 광소자에는 정보표시용 소자(VLED)와 무선 데이터 통신기기의 어댑터로 사용되는 갈륨비소 적외선 소자(IRED)와 초고속, 고해상도 프린터 헤드용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LED 등이 있다.

특히 갈륨비소 적외선 소자는 국내(99년 93%)는 물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99년 20%, 2000년 30% 예상)를 차지하고 있고 갈륨비소 파워 렉티파이어는 미국 루슨트 테크놀러지를 통해 사실상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 2001년 매출 50% 증가 예상

나리지\*온은 사업 분야에 대변화를 시도, 국내 최초의 첨단 6" 갈륨비소 파운드리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기존 사업부문인 광소자 및 파워 디바이스 제조사업(Fab)외에 6" 갈륨비소 파운드리 서비스를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사업의 고도화 및 수익 극대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운드리 서비스용 제2공장을 완공해 장비를 셋업 중에 있으며 6인치 갈륨비소 웨이퍼 가공 규모로는 현존 세계 최대인 월간3000매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3/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 이미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광소자는 청색 LED, 디지털 LED, VCSEL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양산 체제를 갖춰 매출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고 파워 디바이스인 파워 렉티파이어는 기존 실리콘 렉티파이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신규 거래선을 확보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나리지\*온에서는 2001년 매출 목표를 경기불황 예상에 따른 보수적 관점에서 이들 광소자와 파워디바이스 Fab사업 부문에서만 지난해 매출보다 50%가량 늘어난 504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